

전주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돌파

세계적 문화도시 도약 기반 갖춰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

전주한옥마을의 연간 1000만 관광객 돌파는 전주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 기반을 갖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천년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주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만큼 향후 한옥마을 중심의 구도심 일대 100만평(약 330㎡)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만들 경우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 관광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신력 있는 1000만 관광객 돌파

전주시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동안 사용된 이동통신과 SNS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069만9427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

어선 도시는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존재하지만, 역사와 문화자원 등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관광 상품을 앞세운 도시로는 전주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관광시설 등에 의존하는 관광도시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관광주거이론에 따른 관광지의 변화로 관광특수를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천년을 이어온 전주의 전통문화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흉내 낼 수 없는 자원으로,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 원천과 같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효과를 단순히 문화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광경제로 이어져 지역내 경제순환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

긴 전통문화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세계적인 문화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담고 있다.

▲ 구도심의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확대

전주시는 쇠락하고 낙후된 한옥마을이 전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감동적인 역할을 현재 체감하고 있다.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의 손길이 닿은 전주한옥마을이 수많은 관광객들로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실천력을 바탕으로 파리나 로마를 뛰어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주 구도심 100만평에 100가지 색깔을 간직한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축적된 전주의 역사와 문화, 건축 등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에 담아낼 경우, 100~200년 이후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전주부성과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재생하고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성매매 집결지(선미촌) 문화재생, 원색장 마을 농촌관광거점 조성 등 구도심 권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2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서화동에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국제도심형 슬로시티, 전주정신 확산, 인문학 중심의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등 구도심 100만평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구도심 100만평은 전주의 운명을 바꿀 매우 소중한 터전"이라며 "그 어떤 도시도 흉내 낼 수 없는 전주만의 훌륭한 전통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문화도시, 문화강국의 꿈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출입금지' 13일 낮 12시 58분께 전주시 중노송동 한 주택에서 중년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주택 앞 골목길의 모습.

전주시,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추진

전주시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문해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성인 문해교육인 '전주 희망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평생학습기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문해교육 활성화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 희망학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 기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전주시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문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등 13곳이며, 야학과 학원 등 문해교육 전문기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해

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문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를 지원, 300여명의 비문해자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 소년과장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비문해 계층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언제나 배움의 희망을 꿀 수 있는 전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전주시 평생학습관(www.jedut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현장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063-281-536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음식, 명인·명가에 직접 배운다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시루방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음식 명인·명가의 손맛을 배울 수 있는 체험교육이 마련된다.

전주시는 14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시루방에서 전주음식 명인·명가와 함께하는 전통음식 스토리텔링 및 체험활동을 개

최한다.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전통음식 체험에는 첫날 전주백반 분야 우수인 전주음식 명인의 '전주10미(味) 콩나물요리'를 시작으로, 밤·대추고임과 볶김장, 살아있는 청국장 발효방법, 전주전통비빔밥 등 다채로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참여자들에게는 전주 전통음식에 대해 명인·명가로부터 직접 배우고, 명인·명가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관련, 전주에는 현재 비빔밥과 돌솥밥, 한정식, 김치 등의 각 분야별로 명인·명가가 총 11명이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등교하던 여중생 상대 자위 행위 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13일 등교하는 여중생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양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8시12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뒷길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A(15)양

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8월 30일 오전 8시 15분께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양을 우연히 만나자 50m 가량을 뒤쫓아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언행을 하는 등 A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구지서 전주교도소장 취임

완주 출신인 구소장은 지난 1987년 교정간부로 임용돼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광주교도소 총무과장과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밀양구치소장, 순천교도소장, 목포교도소장, 여주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거쳐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전주교도소로 부임했다.



구소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수용관리 및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등 청렴의식을 강조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하고,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시장기 우수 중학교 초청 야구대회 개최

전주시가 미래 대한민국 야구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꿈나무 발굴에 나선다. 전주시는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흘간 전주야구장과 신태인 필연야구장에서 '제9회 전주시장기 우수 중학교 초청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전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주시통합야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북대표인 전라중학교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를 대표한 야구명문 중학교 야구단 선수 및 임원 386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대회는 14개 팀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야구의 꿈나무 발굴과 야구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기간 중 선수 가족과 응원단이 전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동일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전국의 우수중학교 야구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기량을 유감없이 펼치는 제9회 전주시장기 우수중학교 초청 야구대회에 야구를 사랑하는 전주 시민들의 많은 관람과 애정을 가져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국립승리사범대학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